



제목	제국의 미래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비아북
발행일	2008. 6. 9.
저자	에이미 추아 이순희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558
ISBN 또는 ISSN	978-8996079118

**내용 요약**

이 책은 초강대국과 초강대국의 변영의 조건을 다룬 책이다. 여기서 초강대국이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축적하여 세계를 지배했던 극소수의 사회들을 의미한다. 저자에 따르면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초강대국들은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적인 우위에 오르기까지는 대단히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나라였다고 한다. 관용은 모든 초강대국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그러나 한편 초강대국의 쇠퇴의 씨앗을 뿌린 것도 관용이었다. 저자는 제국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제국의 권력은 동시대 경쟁국들이 장악한 권력을 능가해야 한다. 둘째, 제국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제국은 특정한 한 지방 또는 지역에서의 우위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지구상의 방대한 지역과 인구에 대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나라들을 고찰하고 이 나라들이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1장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광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각 지역의 법률과 전통을 포용하고 각 지역의 종교와 언어와 예식을 용인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피정복민의 반란과 반항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 편법에 의한 것이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